

“상상력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가 된다.”

어느 유명한 야구선수가 했던 말입니다. 본인이 상상하는 만큼이 본인이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되니, 큰 꿈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죠. 해당 선수의 인터뷰 기사를 읽다가 우연히 보게 된 저 문구는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남들처럼 하루하루 밥벌이나 하려 했던 어린 아이. 이제는 그 아이가 대한민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싶다는 당돌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지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서울 강남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공부하는 학생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닌, 잘 몰라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이의 상상력에 한계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세상을 위한 작은 노력의 일부입니다.

이 교재는 하위권부터 상위권, 나아가 대치동 학원 강사까지 모두 경험해봤던 저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특정 지문, 특정 제재에서만 통하는 잡기술이 아닌, 근본적인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당연한 이야기들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 하고 ‘고민’ 하는 습관을 들여 주시면 됩니다.

‘생각’ 하고 ‘고민’ 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즐겁습니다. 내 사고력의 한계가 뚫리는 느낌을 받고, 처음에 어려웠던 내용이 사실 별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더 큰 상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는 것은 정말로 즐거운 과정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수험생활에서 이 ‘즐거움’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가 그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냉정한 수능 결과에 상관없이, ‘올 한해 국어 공부 즐겁게 했다.’라는 생각이 앞으로의 인생을 상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줄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미래를 ‘상상’ 하고,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너무나 즐겁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알려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즐거움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와 함께,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만의 기출 해설서를 가지고 싶다는 작은 욕심에서 출발했던 “P.I.R.A.M 국어”도 어느덧 3년차입니다. 그동안 이 교재를 혼자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성원을 보내 주신 수험생 여러분과, 교재 집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수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기꺼이 공동저자로 참여해주신 윤지환, 조경민, 김진우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언제나 제 옆에서 큰 짐을 덜어 주신 박영호 선생님께도 늘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기꺼이 이 교재를 선택해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교재와 함께, 즐거운 국어 공부를 시작해보십시오.

2020년 12월
P.I.R.A.M 국어 대표저자
김민재

교재의 사용법	008p
생각의 틀 정리	011p
기출문제 풀이	015p
교재를 마무리한 후 - 스스로 하는 기출분석	158p

지문 목차

각 Day별로 어떤 지문이 있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학습 계획을 짜거나 복습하실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공부 스케줄에 맞게 푸시면 됩니다. 기본 스케줄은 하루 세 지문으로 정해두었습니다.

DAY 1 016p

[현대소설] 2018.09 [43~45] '눈이 오면'
 [현대시] 2020.11 [43~45] '바람이 불어 / 새'
 [고전소설] 2018.06 [35~38] '적성의전'

DAY 2 022p

[현대소설] 2020.06 [16~18] '토지'
 [고전시가] 2017.11 [43~45] '연행가'
 [현대시] 2019.11 [33~35] '출생기 /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DAY 3 028p

[현대시] 2022예시 [1~4] '수라 / 신의 방'
 [고전시가] 2020.09 [16~20] '상춘곡 / 고산구곡가'
 [현대소설] 2021.06 [34~37]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DAY 4 034p

[고전시가] 2017.09 [16~18] '방옹시여'
 [고전소설+극문학] 2021.06 [41~45] '전우치전 / 전우치'
 [현대소설] 2018.06 [39~41] '큰 산'

DAY 5 042p

[현대소설] 2021.12 [22~25] '사막을 건너는 법'
 [현대시] 2018.06 [26~29] '고풍 의상 / 결빙의 아버지'
 [고전소설] 2019.06 [39~42] '옹고집전'

DAY 6

048p

[고전시가] 2019.06 [32~34] '서경별곡 / 만분가'
[고전소설] 2018.11 [23~26] '사씨남정기'
[현대소설+극문학] 2019.11 [21~26] '천변풍경 / 오발탄'

DAY 7

056p

[현대소설] 2020.09 [42~45] '자서전들 쓰십시오'
[고전시가] 2022예시 [22~25] '개를 소재로 한 시조'
[고전소설] 2020.11 [33~36] '유씨삼대록'

DAY 8

062p

[고전소설] 2017.06 [43~45] '최척전'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 추억에서'
[현대소설] 2021.09 [16~19] '고향'

DAY 9

068p

[현대시] 2021.09 [43~45] '사령 / 한강물 열고, 눈이 내린 날'
[극문학+현대소설] 2017.09 [21~24] '독 짓는 늙은이'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 풍란'

DAY 10

076p

[고전소설] 2019.11 [36~38] '임장군전'
[현대시+극문학] 2017.11 [27~32] '구름의 파수병 / 느낌, 극락같은'
[고전시가+수필] 2018.06 [42~45] '오류가 / 차마설'

DAY 11

084p

[현대소설] 2019.09 [42~45] '비 오는 길'
[고전소설+현대소설] 2017.11 [21~26] '박씨전 / 시장과 전장'
[현대시] 2018.09 [20~22] '플라타너스 / 달'

DAY 12

092p

[현대시] 2021.06 [22~24] '산상의 노래 / 나무의 수사학 1'
[고전시가] 2019.11 [43~45] '일동장유가'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DAY 13

098p

[현대시+수필] 2019.06 [27~31] '휴전선 / 우포늪 왓새 / 주을온천행'
[고전소설] 2021.12 [31~33] '최고운전'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DAY 14

104p

[고전시가+수필] 2021.12 [38~42] '사미인곡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현대시] 2020.09 [35~37] '청명 / 초록 바람의 전언'
[고전소설] 2019.09 [26~28] '홍길동전'

DAY 15

110p

[현대소설] 2017.06 [39~42] '삼대'
[고전시가+수필] 2020.06 [32~36] '유원십이곡 / 조용'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 나무'

DAY 16

116p

[현대소설] 2019.06 [43~45] '한계령'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고전시가+수필] 2021.09 [38~42] '만흥 / 우연'

DAY 17

122p

[현대소설] 2022예시 [26~29] '무정'
[고전시가+수필] 2020.11 [21~25] '월선헌십육경가 / 어촌기'
[현대시] 2018.11 [20~22] '강 건너간 노래 / 묘비명'

DAY 18

128p

[고전소설] 2021.09 [31~33] '심청전'
[극문학] 2019.09 [39~41] '공동 경비 구역 JSA'
[고전소설] 2018.09 [33~37] '춘향전 / 춘향이별가'

DAY 19

136p

[현대시] 2020.06 [43~45] '추일서정 / 하늘과 돌멩이'
[고전소설] 2017.09 [40~45] '김현감호 / 이생규장전'
[현대소설] 2020.11 [30~32] '자전거 도둑'

DAY 20

144p

[현대시] 2021.12 [43~45] '그리움 /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고전시가] 2017.06 [25~27] '동동 / 가시리'

[고전소설] 2022예시 [11~15] '박씨전 / 조보'

DAY 21

152p

[현대시+수필] 2017.06 [34~38] '향현 / 우리가 물이 되어 / 눈'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고전시가] 2021.06 [38~40] '관동별곡'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설 74P

-2020.09 [42~45]

지옥은 차츰 선생의 그런 신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옥의 이해와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압박감**이 그를 못 견디게 짓눌러 왔다. 믿음이 논리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논리적인 이해가 불가능한 **신념**은 맹목적인 아집에 그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선생의 신념은 털끝만큼 한 자기 회의마저 용납을 하지 않고 있었다. 회의가 없는 신념은 맹목적인 **자기 독단**에 흐를 위험 또한 큰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지옥이 그에게 소망해 온 어떤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일 수 있었다. **회의**가 없는 자서전이야말로 영락없이 한 거인의 동상에 불과할 뿐이었다. 지옥이 최상윤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 자신 최상윤 선생에게서와 같은 어떤 **의식의 경화** 현상을 싫어해 온 성격 이외에도, 그와 같은 위험성을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그보다도 지옥이 더더욱 그 선생의 신념을 두려워한 것은 그의 너무나도 일상불란한 언동이나 생활 방식에서 오히려 어떤 씻을 수 없는 가식의 냄새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인간의 생애에서 이처럼이나 말끔하게 후회나 의구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이 깐깐하고 **결백**스런 노인에게서라도 어찌 따뜻한 아랫목과 좋은 음식에 대한 바람이 전혀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엄격한** 극기의 세월이었던들 그것이 어찌 감히 사람의 가장 사람다운 욕망까지를 송두리째 근절시켜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노인은 어찌하여 그것을 끝끝내 시인하려 들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진실로 그의 **부끄러움**이 될 수는 없단 말인가—

(중략)

“이거 아무리 맘에 없는 옷을 팔아먹고 사는 무식쟁이라고 누구한테 지금 설교를 하려는 거야 뭐야, 건방지게. 그래 내가 지금 당신 같은 위인의 신세 하소연이나 듣자고 이런 텔 찾아온 줄 알아? 그렇게 내가 한가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말야. 왜 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걸 말해 보라는 거야. 이 유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

갑자기 **반말 투로** **옥박질러** 오는 피문오 씨의 어조에 지옥은 새삼 가슴이 내려앉는 표정이었으나, 이미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피문오 씨의 행패는 견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게 아니라니? 아니 이거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날 바보 취급하고 나설 테야? 당신 눈엔 정말로 내가 그렇게 얼렁뚱 땡 되잖은 소리로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 모양이지? 그

래, 뭐가 어째? 내 일을 하지 않게 된 게 내 탓이 아니구 당신의 그 **알량한 양심** 때문이라구? 내가 그래 그 알량한 당신의 양심에 **들러리**라도 서야 한다는 거야 뭐야. 업어치나 메치나 그게 그놈 아들놈 같은 소릴 가지고, 정 내게 ㉠ **말재간**을 한번 부려 보고 싶어서 이래? 당신 눈엔 이 피문오가 그래 그만 ㉡ **말귀도 못 알아들을 바보** 멍청이로만 보이느냐 말야? 내 아까부터 참자 참자 하다 보니 이 친구 아주 형편 없이 맹랑한 데가 있는 작자로구만 그래.”

피문오 씨는 이제 스스로도 분을 참을 수 없게 된 것 같았다. 벌건 얼굴에 튀어나올 듯 두 눈알을 부라려 대면서 장갑을 몰아 쥔 한쪽 손을 피스톤처럼 마구 지옥의 턱 앞으로 내질러 대고 있었다.

지옥은 그만 기가 확 질리고 말았다. ㉢ **무슨 말을 할래도 목이 말라 소리가 되어 나오질 않았다**. 그는 부들부들 떨려 오는 두 다리를 간신히 버티고 선 채 절망적인 눈초리로 피문오 씨의 폭풍우 같은 수모를 고스란히 견디고 있었다.

불현듯 최상윤 선생의 일이 이 처참스런 곤욕을 견뎌 낼 수 있는 어떤 서광처럼 머릿속으로 떠올라 왔다. 최상윤 선생과의 약속이 그의 참을성에는 상당한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이런 자의 자서전 따위 대필하려 했다니! 최상윤 선생과 같은 분에게조차 내 주관을 굽힐 수 없었던 이 지옥이 아닌가. 이런 자의 책을 쓰면서 그의 밑구멍을 훑느니 차라리 선생의 발밑에라도 나가 엎드려 선생의 신념을 찬미함이 낫지 않으나. 참자! 작자의 일을 피하자면 이쯤 굴욕은 즐거이 참아 넘기자. 참아서 넘겨야 한다—

하지만 피문오 씨는 그 정도로는 물론 분통이 풀릴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어디 선생! ㉣ **말씀을 좀 해 보시라구**. 아니 글에서는 것처럼 잘난 체 말이 많더니, 제 잘난 소리나 시부렁거릴 줄 알았지 선생도 남의 말을 알아듣는 텐 귀가 꼭 멀어 버리셨나. 왜 통 대답이 없으셔? 그렇담 내가 좀 더 수고를 해 주실까? 어째서 내 일을 하지 않게 되었느냐, 내 일을 하기가 싫어졌느냐…… 그 이유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달라 이거야. 이 무식한 놈도 좀 분명하게 알아듣고 납득이 가게끔 말아야. 알아들 어?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겠다면 ㉤ **내 좀 더 똑똑히 말을 해 줄까?**”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는 지옥을 마음 내키는 대로 매도해 대다 말고 피문오 씨는 무슨 생각을 해 냈는지 갑자기 목을 잔뜩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청송맛도록 능청스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쳐 대기 시작했다.

㉥ **“고장 난 시계나 라디오들 고칩시다아— 채권 삽니다아— 부서진 우산이나 빈 병 삽니다아— 자서전이나 회고록들 쓰십시오아—”**

고저단속(高低斷續)을 적당히 조화시켜 가며 길게 외쳐 대고

난 피문오 씨가 이젠 좀 알아듣겠느냐는 듯 여유만만한 표정으로 지옥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이청준, 「자서전들 쓰십시다」-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의 빈번한 교차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내면을 묘사하며 인물이 처한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묘사하며 사건의 원인을 추리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2. 문맥상 의미를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피문오가 지옥의 말을 무시하고자 하는 경멸의 감정을 담고 있다.
- ② ㉡ : 지옥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여기는 피문오의 성난 감정을 담고 있다.
- ③ ㉢ : 피문오에게서 수모를 당하는 지옥이 항변도 못하고 주눅이 든 상태를 나타낸다.
- ④ ㉣ : 피문오가 지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투고 있음을 나타낸다.
- ⑤ ㉤ : 침묵하는 지옥에게 피문오가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풀 것을 독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3. <보기>를 참고할 때,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서전들 쓰십시다」의 주인공은 자서전 대필 작가로서의 글쓰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의뢰인의 삶을 미화하여 결국 의뢰인에게 아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뢰인들은 자신의 요구를 강요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아 주인공을 괴롭히기도 한다. 주인공이 바라는 의뢰인은 작가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하는 사람이다. 또한 주인공은, 후회나 의문이 없는 확신에 찬 태도로 독자를 사로잡는 주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타인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원한다.

- ① 작가에게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기 독단’이 강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태도로 ‘신념’을 내세우는 것은 독자를 사로잡는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② 스스로 ‘회의’하며 ‘의식의 경화’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은 삶을 거짓 없이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엄격한 극기’로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게 사는 것은 독자에게 후회나 의문이 없는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자서전을 쓰라고 ‘반말 투로’ 작가를 ‘억박’ 지르는 것은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아첨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 ⑤ 작가의 ‘양심’을 ‘알량’하다고 여기고 자신은 ‘들러리’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작가를 존중하지 않고 삶을 미화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감동적인 자서전적 인물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겠군.

4.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피문오는 지옥이 생각하는 자서전의 가치를 폄하하여 지옥을 우롱하고 있다.
- ② 피문오가 자서전을 상품으로 팔기 위한 방법을 지옥에게 직접 보여 주고 있다.
- ③ 피문오가 ‘잘난 소리’를 하는 지옥에게 자신은 ‘무식한 놈’이 아님을 과시하고 있다.
- ④ 피문오가 자서전 쓰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야 한다고 지옥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⑤ 피문오는 지옥의 자서전 쓰기에 소재를 제공하고자 ‘맘에 없는 웃음을 팔아먹’어 왔던 자신의 직업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77P

-2022예시 [22~25]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써어 있다.



[사진]
추철회시문다완(荻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즈치 말라 밤 사름 다 도듯가
즈목지 호고려 님 지슌 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ㅎ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좇지 마라 밤 슄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걸이 님 चु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걸의 집 갠지 듯고 줌즘ㅎ느라

*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चु심 단니노라: 찾아오라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 (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

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얹미우라

미운 임 오면은 꼬리를 뽼뽼 치며 치뽼락 내리뽼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임 오면은 뽼뽼를 벼뽼벼뽼 무르락 나으락 캥캥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썸뽼미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얹뽼고 좇미우라
낮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뽼뽼 치며 반겨라고 내달
아 요리 납작 조리 가웃하되 낮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뽼를
뽼뽼디디고 콧살을 쩡그리고 이뽼뽼를 엉성거리고 켤썸 좇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여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작자 미상, 「살구」-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줏지 마라’ 라고 한 것은 ‘밤 슴’이 개가 짖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 ② 초장의 ‘도적’ 과 중장의 ‘두목지 호걸’ 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 ③ 중장의 ‘두목지 호걸’ 은 ‘두목지 같은 호걸’ 로 풀이되어 ‘호걸’ 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 ④ 중장의 ‘줍줍헛더라’ 는 ‘호걸’ 이 ‘님 추심’ 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줏지 마라’ 라고 부탁한 이유를, 중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6. ‘개’ 를 중심으로 (나)와 (다)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다)의 개는 모두 화자의 기다림을 표현하는 매개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② (나)와 (다)에서는 모두 지시어에 의해 개와 화자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환기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모두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개의 반응이 다른 데서 시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 ④ (나)의 개는 화자와 교감이 가능한 대상으로, (다)의 개는 화자와 교감을 나누기 어려운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 ⑤ (나)의 개가 상황이 변해도 행동을 바꾸지 않는 존재라면, (다)의 개는 상황이 변하면 행동을 바꾸는 존재로 제시되고 있다.

7.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 | | ㉠ | ㉡ | ㉢ |
|---|---------|---------|---------|
| ① | (가)→(나) | (나)→(다) | (다)→(라) |
| ② | (가)→(나) | (다)→(라) | (나)→(다) |
| ③ | (나)→(가) | (나)→(다) | (다)→(라) |
| ④ | (나)→(가) | (다)→(라) | (나)→(다) |
| ⑤ | (다)→(라) | (나)→(다) | (가)→(나) |

8.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입’ 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 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쳐 사람’ 과 ‘집안사람’ 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설 80P

-2020.11 [33~36]

[앞부분의 줄거리]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내쫓는다.

백공이 왈,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한림의 재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해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 군자라 예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가로되,

“제가 두 형과 더불어 죽마고우로 절친하고 또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하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제가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일을 꾸며 구혼하면서 ‘정약’이라는 글자 둘을 더했으니 이는 진실로 저의 희롱함이외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곤이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에 도리어 훼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으리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여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의 죄가 없는 줄을 알고 기뻐하면서 사례하여 왈,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들 만하되, 이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하였소이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더니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백공이 화답하고 이윽고 돌아가서 다시 혼삿말을 이르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보냈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한림이 절을 하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차후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하고, 소 소저와 더불어 백수해로하면서 여덟 아들, 두 딸을 두고,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산천의 정기와 일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옥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며,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하더라.

(중략)

화설, 장 씨 ㉠이 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가를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되,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거늘,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군을 빼앗아 가 위세로써 나로 하여금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셨는가?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우주 사이는 우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리오?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엔 빛이 나지 않으리니 제 짐짓 능활하여 아버님, 어머님이나 시누이를 제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의 마음은 이를 좇아 완전히 달라질지라. 슬프다, 나의 앞날은 어이 될고?”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나리오? 정히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하더니, 문득 세형이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도포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 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옥수를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며 물어 왈,

“그대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좇음을 원망하는가?”

장 씨가 잠시 동안 탄식 왈,

“낭군은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좇는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깊은 규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다만 제가 귀택에 들어온 지 오륙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과 낭군뿐이라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이옵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 온 집의 권세를 오로지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 가진 하졸이 머릿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게 만드옵니다. 제가 감히 항거할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신세가 구차하여 슬프고, 진양궁에 나아가면 궁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질하며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고, 제 입에서 말이 나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실례를 면하고 돌아왔사옵니다.”

부마가 바야흐로 장 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 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장 씨의 이렇듯 애원한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 씨를 위한 애

정이 샘솟는 듯하였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 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하여 이날부터 발자취가 ㉠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연리지와 같은 신흠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작자 미상, 「유씨삼대록」-

9. 이같이 좋지 않은 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 ② 백공이 한림을 곤경에 처하게 한 일이다.
- ③ 선생과 승상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심화된 일이다.
- ④ 한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지람을 당한 일이다.
- ⑤ 백공이 한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다 일어난 일이다.

10.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대화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B]는 지난 일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11. '장 씨'를 중심으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학문을 연마하는 공간이고, ㉡은 덕행을 닦는 공간이다.
- ② ㉠은 불신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조소를 당하는 공간이다.
- ③ ㉠은 한탄을 드러내는 공간이고, ㉡은 애정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④ ㉠은 계책을 꾸미는 공간이고, ㉡은 외로움을 인내하는 공간이다.
- ⑤ ㉠은 선후 시비를 따지는 공간이고, ㉡은 오해를 해소하는 공간이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유씨삼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에, 가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 간다.

- ①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형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세기의 혼사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한 것을 보니,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들의 문제로 다루어짐을 알 수 있군.
- ③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한 곤욕을 치른 것과 유세형이 공주를 멀리 한 것을 보니,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임을 알 수 있군.
- ④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는 것과 천자가 유세형을 부마 삼은 것을 보니, 혼사가 혼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 수 있군.
- 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 소저와 해로했다는 것을 보니, 유세기를 둘러싼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알 수 있군.

실전 독해

시가 너무 어려워요. 전반적인 상황과 반응만 체크해봅시다. 일단 ‘봄밤’인데, 밤이 아름답다고 하며 여러 가지 옷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이 정도 말고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나머지 내용은 선지를 판단하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 표현은 여기저기서 쓰이긴 했는데, (가)를 적용하기엔 너무 어려워 보여요. 이 정도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사후적 독해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 부연(附緣): 긴 서까래 끝에 덧엮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하늘에 쪽 뻗어 있는 ‘부연’ 끝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엔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정확히 해석하지는 못해도, 무언가 이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는 느낌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곱다’, ‘아름답다’와 같은 표현도 곁들이면서 말이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줏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 호장: 회장(回裝). 여자 저고리를 색깔 있는 형식으로 꾸민 것.

이번엔 ‘호장저고리’에 대한 묘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엄청나게 아름답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화자의 상황이나 반응을 정확하게 잡기 어려운 묘사 위주의 작품인 것 같아요.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며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야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줄 골라 보리니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어지이다

—조지훈, 「고풍 의상」—

* 초마: ‘치마’의 방언.

어휘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초마’를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읽어낼 수 있죠? 밤의 풍경과 ‘호장저고리’라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사람에 대한 묘사가 주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어요.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겉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뺏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짹 짹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실전 독해

‘어머님’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즈음’, ‘오늘’로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딱 이 두가지, ‘시간의 흐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만 잡아내시면 거의 다 읽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후적 독해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가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어머님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네요. 예닐곱 살 적 다다미방의 겨울은 정말 추웠고, 그때마다 아버지 품에 쏙 안겼다고 합니다. 추웠던 과거와 그 속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땀가루로 삭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 오네요. 이런 시간의 변화 잘 체크해야겠죠? ‘요즈음’에도 추운 밤에는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 해요. 아버지가 된 화자가 과거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애절한 장면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짹 짹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그러다가 또 ‘오늘’로 넘어와요. 계속 시간이 바뀝니다!! 오늘은 한강교를 지나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네요. 아버지의 귀신을 본 걸 수도 있고, 한강의 물살이 그냥 아버지 같았을 수도 있겠죠. 아

무튼 이렇게 아버지가 그림다고 하는 내용이었죠? 아버지가 부재하다면, ‘그림다’는 반응은 자동이니까요.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05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5%	10%	5%	13%	7%

① 시에 드러난 자연적 시간은 ‘밤’인데, 작가는 이를 ‘두견이 소리’라는 감각적 이미지와 현재형 시제를 통해 문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의 첫 문단의 내용에 따라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② ‘곱아라 고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는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고, (가)에서 이런 건 보통 현재형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도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으니까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없겠네요.

③ ㉡은 현재형이니까 틀렸네요.

④ ‘이 밤’과 ‘옛날’을 동시에 사용했으니까 과거와 현재의 통합적 인식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지만, 시간의 ‘정확성’은 너무 뜬금없네요. ‘이 밤’과 ‘옛날’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보기엔 어렵겠죠? [A]에서도, 서정시는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고 말했으니 (가)의 내용만 보아도 지워낼 수 있는 선지 같습니다.

⑤ ㉢에는 과거형이 쓰이지 않았어요. 애도 틀렸네요.

그냥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원칙을 가지고 매우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네요. 이 선지의 내용을 미리 찾아볼 필요는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의 허용 가능성을 ‘평가’하기만 하면 돼요!

06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72%	5%	7%	12%

- [A]는 서정시가 과거와 현재를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하나하나 평가해봅시다.

① 유년 시절은 과거이고, 어머니에게 들려주는 건 현재니까 둘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은 과거의 공간이네요. '현재' 위치라는 것에서 바로 틀렸네요. 시간이라는 화자의 '상황'을 집요하게 체크했다면 매우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겠어요.

③ '옛날처럼 나는'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점이 '현재'이고, 화자는 이렇게 '현재'에 '옛날'을 떠올리고 있으니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선지 그 자체로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④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은 '과거'에 해당하고,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는 건 '현재'에 해당합니다. 둘이 공존하고 있으니 이를 '통합'이라는 말로 바꿔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역시 '그 겨울밤의 아버지'는 '과거'의 대상이고,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이므로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죠? [A]에선 이를 '시간의 모호성'이라고 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07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28%	5%	12%	6%	49%

① '곰아라 고아라' 등에서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확인할 수 있고, 갑작스레 시어가 변했으니 '리듬감 변화'도 허용이 되겠네요. 자신이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못 찾았다고 그냥 답으로 찍어버리면 안 돼요. 그럴 땐 오히려 넘어가야 합니다! 답을 고르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골라야 해요.

② '저고리' 같은 전통적인 소재를 이용하고 있고, 말투도 조선시대처럼 예스러워요. (옛날 같아요.) 허용 가능하겠네요.

③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거지이다'에서 확인이 되겠죠? 손을 흔드는 행위를 '버들'이라는 자연물에 빗대고 있으니깐요. 역시 못 찾았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돼요!

④ 자주색, 하얀색 등 색채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쉽게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⑤ 말줄임표를 사용한 곳은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부분인데, 춤을 추고 숙이는 것은 '동적'인 상태인데 '정적'인 상태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이 상황에서 동적인 상태와 정적인 상태가 충돌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답은 쉽게 5번이네요.

08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8%	84%	2%

① 화자는 '결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 즉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처 맥락을 바탕으로 시어의 의미를 '독해'하면 너무나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네요.

②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것은 이 시의 상황 그 자체이니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근거로 '애틀함'을, 말줄임표를 근거로 '여운'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③ 선지 그 자체로 허용하고 넘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지만,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꽤나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선지에선 '한 줌 뺨가루'의 이미지와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의 이미지를 연관시켰는지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근처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해보면, '한 줌 뺨가루'는 화자를 품어 주던 '아버지의 가슴'을 의미하고, '하얗게 얼음으로 엮드려 있는' 강은 '아버지'가 '이승의 물'(한강물)로 화신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둘 다 떨고 있는 화자를 안아 주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미지의 연관'이라는 말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네요. '뺨가루'와 '얼음' 모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니,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역시 허용할 수 있겠구요.

이처럼 선지에서 묻는 것이 복잡한 경우에는 차분하게 그 근처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시도 글입니다. 천천히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④ 아버지의 내면의 의도가 '이놈들 다 죽여버릴거야!' 같은 것들이었나요? 아니죠. 아버지는 자식들을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내면이 '나를 품어주던 가슴'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구요. 내면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어요.

⑤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 현재 떠올리고 있는 ‘옛날’은 ‘아버지 가량이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었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곁에 눕고 싶다면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과거 및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시의 상황과 반응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허용 가능성 평가하기! 우리가 배운 이것으로 모든 시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것을 느껴봅시다. 특히 7번 문제 보세요. (나) 시의 내용은 정말 어려웠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가 어렵더라도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객관적인 내용만 체크하고 선지에서 묻는 내용의 ‘독해’를 통해 허용 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기본적인 태도만 정리하도록 합니다.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됩니다.
- ③ 비평문 융합 : 비평문은 일종의 <보기>처럼 활용합니다. 너무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9~12] 2019.06 [39~42] ☆ ☆

이번에도 <보기>를 먼저 봅시다. 일단 12번 문제의 <보기>는 이 작품의 다른 버전이니 굳이 안 봐도 되겠고, 11번 문제의 <보기>를 봅시다.

[보기]

「옹고집전」은 주인공 ‘참옹고집’이 소외를 경험하도록 그와 똑같이 생긴 ‘짚옹고집’을 등장시켜 그를 대신하게 하는 독특한 인물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참옹고집’으로 형상화된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부유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하면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짚옹고집, 즉 가짜 옹고집을 등장시키는 신기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건 사회적 부유층의 사회적 책무와도 연결된다고 해요. 참옹고집이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지 않고 외면했나 보네요. 이 정도면 줄거리를 거의 다 알려준 것 같아요. 지문 이해하러 가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옹고집**은 성격이 고약한 부자이다. 어느 날 옹고집 앞에 **가짜 옹고집**이 나타나, 서로가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한다.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 주저 없이 제가 앞에 가며 읍의 촌가인 **하나**와 만나 보면 깜짝 반겨 두 손을 잡고, “나는 가변을 송사하러 가는지라. 자네와 나와 아무 연분에 서로 알아 죽마고우로 지냈으니 나를 몰라볼쏘냐.”

또 **하나**를 보면, “자네 내게서 아무 연분에 돈 오십 냇을 취하여 갔으니 이참에 못 주겠느냐. 노잣돈 보태 쓰게 하라.”

또 **하나** 보면, “자네 쥐골땡 눈 두 섬지기 이때까지 소작할 제, 거년 선자(先資)* 스물닷 말을 어찌 아니 보내는가.”

이처럼 하니 참옹고집이 짚옹고집을 본즉 낯날이 내 소견대로 내가 할 말을 제가 먼저 하니 **기가 질려** 뒤에 오며, 실성한 사람같이, 아는 사람도 오히려 짚옹고집같이도 모르는지라.

짚옹고집이 노변에서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하는 말이, “가운이 불길하여 어떠한 놈이 왔으되 옹모 나와 비슷해 제가 내라 하고 자칭 옹고집이라 하기로, 억울한 분을 견디지 못하여 일체 구별로 송사하러 가는지라. 뒤에 오는 사람이 기네. 자네들도 대소간 눈이 있거든 혹 흑백을 가릴쏘냐.”

참옹고집이 뒤에 오면서 **기가 막히고 열척도 없어 말도 못하고 울음 울 제**, 행인들이 이어 보고 하는 말이, “누가

알아보리오. 뉘 아들인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상동이란 말밖에 또 하리오.”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참옹고집’과 ‘짚옹고집’이 나오네요. 일단 초반 ‘두 옹고집이 송사 가는 제, 읍내를 들어가니 짚옹고집 거동 보소.’는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 있겠죠? ‘거동 보소’라는 표현은 서술자의 생각이잖아요! 봤다면 바로 체크해 봅시다. 이 ‘짚옹고집’이 만나는 사람마다 ‘참옹고집’과 있었던 일을 줄줄 읊어 주면서 본인이 진짜 옹고집이라는 걸 주장하고 있네요. ‘참옹고집’은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는 심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심리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참옹고집’의 답답한 심정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면 완벽하게 읽고 계신 겁니다.

짚옹고집 반만 웃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내정으로 들어가니 처자 권속이 내달아 잡고 들어가니, “하늘도 무심치 아니하기로 내 좋은 형세와 처자를 빼앗기지 아니하였다.”

송사를 이긴 내력을 말하니 처자 권속이며 상하 노복 등이 참옹고집으로 알고, 마누라는, “우리 서방님이 그런 고생이 또 있을까.”

못 아들 나서며, “그런 자식에게 아버지가 큰 봉채를 보았다.”

노복 종이며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거늘, 짚옹고집이, “내가 혈혈단신으로 자수성가하기로 전곡을 과연 아끼려 줄만 알았더니 내빈 왕객 접대 상과 만가 동냥 거지들을 독하게 박대하였더니 인심부득 절로 되어 이런 재변이 난 듯싶으니, 사람 되고 개과천선 못할쏘나. 오늘부터 재물과 곡식을 흠어 활인구제(活人救濟)하리라.”

전곡을 흠어 사방에 구차한 사람을 구제한다니 말이 낭자하니 팔도 거지들과 각 절 유결승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드니 백 냥 돈 천 냥 돈을 흠어 주니 옹고집은 인심 좋단 말이 낭자하더라.

하루는 주효를 낭자케 장만하고 원근에 모모한 친구며 사방 사람을 청좌하여 대연을 배설할 제, 이때의 참옹고집 전전결식하다가 맹랑촌 옹고집 활인구제한다 말 듣고 분심으로 하는 말이,

“남의 재물 갖고 제 마음대로 쓰는 놈은 어떤 놈의 팔자 인고, 찾아가서 내 집 망종 보고 죽자.”

하고 죽장망혜로 찾아갈 제, 짚옹고집 도술 보고 근처에 참옹고집 온 줄 알고 사환을 분부하되,

“오늘 큰 잔치에 음식도 낭자하고 걸인도 많을 제, 타일 천하게 다투던 거짓 옹가 놈이 배도 고프고 기한(飢寒)을

견디지 못하여 전전결식 다닐 제, 잔치 소문을 듣고 마을 근처에 왔으나 차마 못 들어오는가 싶으니 너희 등은 가서 데려오라. 일변 생각하면 되도 못할 일 하다가 중장(重杖)만 맞았으니 불쌍하다.”

사환 등이 영을 듣고 사방으로 나가 보니 과연 마을 뒷산에 앉아 잔치하는 데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앓았거늘 사환들이 바로 가서 영겁결에 배례하고 문안하니, 슬프다. 참옹고집이 대성통곡 절로 난다.

(중략) 이후의 부분인데, 아마 ‘짚옹고집’이 송사에서 이겼나 봐요. ‘짚옹고집’이 ‘참옹고집’인 것처럼 하면서 가족들이랑 눈물의 상봉을 하는 모습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거기에 ‘참옹고집’의 재산으로 거지들을 구제하는 등 착한 일을 하고 있어요.

화가 난 우리의 ‘참옹고집’은 잔치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짚옹고집’이 이걸 미리 알고 있네요! ‘온 줄 알고’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좀 대단한 인물인 것 같네요. 그러면서 ‘사환’이라는 인물에게 ‘참옹고집’을 데려 오라고 했고, ‘사환’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참옹고집’에게 가고 있습니다.

사환들이 가자 하니, “갈 마음 전혀 없다.”

여러 놈이 부축하여 들어가서 좌상에 앉으니 짚옹고집 일어서며 인사 후에,

“네 들어라. 형세 있어 좋다 하는 것이 활인구제하여 만인적선이 으뜸이거늘 천여 석 거부로서 첫째로는 부모 박대하니 세상에 용납지 못할 놈이요, 둘째는 유결산승 욕보이니 불도가 어찌 허사리오. 우리 절 도승이 나를 보내어 묘하신 불법으로 가르쳐서 너의 죄목을 잡아 아주 죽여 세상에 영영 자취 없게 하여 세상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 하라 하시거늘 너를 다시 세상에 내어 보내기는 나의 어진 용심으로 살린 것이니, 이만해도 후생에게 너 같은 행실을 징계한 사례가 될 듯싶으니 이후는 아무쪼록 개과하라.”

하고, 좌상에 나앉으며 문득 자빠지니 허수아비 찰벼 짚 묶음이라.

이로 좌상이 다 놀라 공고를 하고 옹고집이 이날부터 개과천선하여 세상에 전하여 일가친척이며 원근친고 사람에게 인심을 주장하니 옹고집의 인심을 만만세에 전하더라.

—작자 미상, 「옹고집전」—

갈 마음 없다는 '참옹고집'을 '사환들'이 붙잡고 '짚옹고집' 앞에 데려다 놓으니, 앞으로는 많이 베풀고 잘하라고 하면서 '짚옹고집'이 짚으로 변해 버립니다. 반성한 '참옹고집'은 그 뒤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네요.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모든 심리의 근거가 '참옹고집'의 억울함에서 비롯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09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9%	7%	67%	13%	4%

① 돈 얘기는 나오지만 송사의 원인이 돈은 아니죠? 송사의 원인은 두 '옹고집' 중 누가 진짜인지를 가리는 겁니다. 지문을 이해했다면 틀릴 수가 없는 선지예요.

② 행인들은 일관되게 헛갈려 하고 있죠. 그 누구도 누가 '참옹고집'인지 예측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③ '기가 막히고', '얼척도 없어'. 인물의 심리 및 그 근거를 체크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④ '참옹고집'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 거리기만 하고 있어요. '서로를 비방'한다는 걸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죠?

⑤ 외양 묘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가볍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10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4%	80%	6%	6%

① '우리 서방님'과 같은 표현에서 충분히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이죠? (중략) 이후 '짚옹고집'이 송사에서 이겼음을 확실하게 이해했어야 합니다.

② '짚옹고집'이 자신의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내용은 당연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③ '짚옹고집'은 이미 '참옹고집'이 왔다는 걸 알고 있고, 뒤에서 '사환'을 시키면서 '참옹고집'이 '불쌍하다'고 했으니 수상히 여길 리가 없죠. 인물의 심리와 그 근거에 신경 썼으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④⑤ 그러고 있죠? 선지가 지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주고 있어요.

11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5%	5%	8%	6%	6%

① '참옹고집'이 가족에게 소외되어 온 정황이 드러난다구요? 진짜 가족에게 소외되었으면 오히려 쫓겨났을 때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옹고집'의 가족들은 진짜 옹고집으로 여겨진 '짚옹고집'이 오자 엄청나게 반겨 주고 있습니다. 절대 허용할 수 없겠네요. <보기>의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를 보고 별 생각없이 지나가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보기>를 참고하더라도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들입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는 다르니까요.

② 박하게 대했다 = 가난한 이들 외면. 허용할 수 있네요.

③ 구차한 사람 구제 = 가난한 이들 구제. 허용할 수 있구요.

④ 돈 막 줄 수 있다 = 엄청 부자. 허용할 수 있네요.

⑤ 전전결식 = 공동체 소외, 고통. 허용할 수 있네요.